

“송천변전소 주민안전 행정조치를”

전주시의회 김남규 의원 5분 발언... “전자파 피해 우려 주민들 의견 적극 수렴해야”

전주시의회 김남규 의원이 송천변전소 주변 주민 안전을 위한 조속한 행정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남규 시의원(송천1동)은 22일 제 32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송천변전소 주변 주민들이 전자파 피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전자파 피해 조사용역과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안정성 확보를 위한 행정 후속 절차가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김남규 의원은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북안산 변전소는 지난 2007년 건설계획을 확정된 뒤에도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후보지 선정 작업을 다시 한 차례도 있다”며 “전주시도 송천변전소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안산시의 경우 7차례에 걸친 주민 참여 ‘갈등관리조정회의’를 통해 한전과 주민 등 이해당사자들 간 갈등을 해결한 새로운 모델로 평가된다.

이 과정에서 안산시 주민들은 ‘변전소 부지가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건립 예정지와 인접해 있고, 반경 500m 이내에 주거지역과 학교가 위치해 있어 전자파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산시의 한전은 주민이 참여하는 갈등관리조정회의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8년간 표류한 변전소 건설사업을 본격화했다.

김 의원은 “전주시도 안산시의 사례를 참고해 송천동 변전소 건립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과도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갈등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체육회 자문기구 위원 위촉식

송하진 도지사는 22일 전북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원로위원, 자문위원, 체육발전특별위원회, 미래창조위원회 위원들에게 도체육회 자문기구 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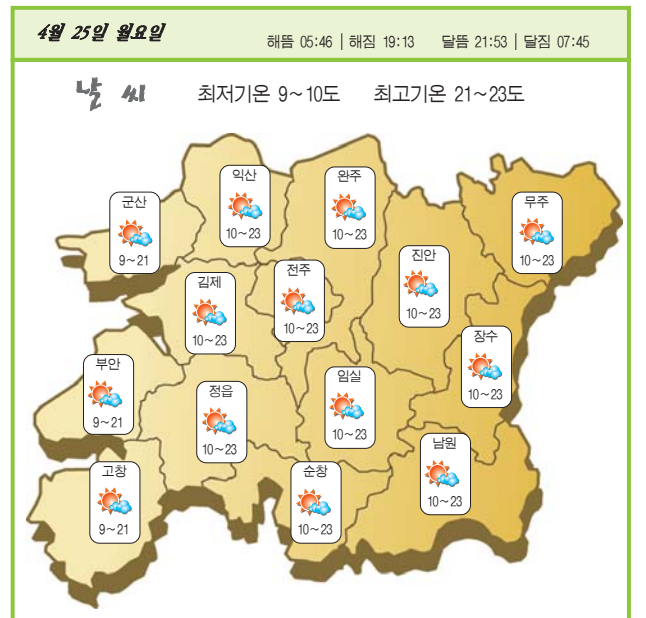
또한 “전주시의 경우 송천동 변전소 TFT를 구성해 놓고도 전자파조사를 한 차례 진행한데 그치고 있다”며 “송천동 변전소 TFT에 환경, 전기 전문가와 도로굴착 관련 부서도 포함해 전자파 피해와 안전을 위한 조사용역계약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굴착노선에 대한 고려와 굴착의 깊이도 조사용역에서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며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행정조사와 절차를 한전과 다시 한 번 진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자파 피해와 안전 조사 용역이 수행 완료된 후에 도로 굴착 심의가 이뤄져야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며 “1층 근린생활시설 분류로 송천변전소 인허가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변전소 건립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이 곳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한전과 재협상을 통해 송천동 변전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재 기자



전북대, 글로벌 ‘오프캠퍼스’ 본격

올해 8국 10개 해외 협정대학에 450여 명 학생 파견 예정

전북대학교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학생들을 해외 자매결연 대학에 파견하는 글로벌 ‘오프캠퍼스(Off Campuses)’를 본격 시행한다.

‘오프캠퍼스’는 학생들을 입학 시부터 졸업까지 최소 한 학기 이상 대학을 떠나 생활하게 하면서 해당 지역 언어와 생활방식, 문화 등을 경험하게 해 글로벌 감각과 타문화 포용력, 공동체 의식 등을 심어주는 전 북대만의 모험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전북대는 지난 22일 학생들을 해외 자매결연 대학에 파견하는 오프캠퍼스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올해 전북대는 미국과 캐나다, 영

국, 호주, 스페인,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8개 나라 10개 대학에 총 450여 명의 학생을 한 학기 동안 파견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진안군과 MOU 체결을 통해 진안군 출신 재학생 25명을 선발해 오프캠퍼스 수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발 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한 학생들은 여름방학부터 희망하는 해외 대학에 한 학기 동안 나가 생활하며 현지 언어와 다양한 문화 등을 체득하며 학점도 인정받게 된다.

윤명숙 대외협력본부장은 “오프캠퍼스를 통해 학생들이 국제적 감각과 문제해결 능력, 타문화 포용력 등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주국제영화제, 시민 속으로 ‘풍덩’

영화의 거리·풍남문 광장·남부시장 청년몰도 행사장으로 활용

전주국제영화제가 시민들 속으로 한 발 더 다가간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28일 개막하는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전주를 상징하는 메인 포스터를 제작한 것은 물론, 영화의 거리를 비롯해 풍남문 광장, 남부시장 청년몰 등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는 등 영화제 전면에 ‘전주’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상영관이 집약된 ‘영화의 거리’는 대규모 야외상영, 관객쉼터, 프로모션 부스, 관객파티 등이 운영되며

이번 영화제를 통해 대한민국 독립영화의 중심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 고사동 ‘영화의 거리’는 예부터 전주의 주요 영화관이 자리해왔다. 이곳은 전주에서 국제영화제가 열린 이후부터는 영화제를 찾은 영화인들의 핸드프린팅 등이 전시되고, 다양한 경관조형물들이 들어서는 등 새로운 명소로 변모했다. 또, 영화의 거리 내 전주영화제작소에는 영상문화와 국제영화제 관련 다양한 예술콘텐츠를 만

날 수 있는 기획전시실과 영화·영상 후반 제작실, 영화관련 제작사와 영상 기술 업체 등을 지원하는 입주업체 사무실, 자료실 등을 갖추고 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풍남문 광장과 남부시장 청년몰도 관객들을 위한 각종 크고 작은 이벤트가 열리는 축제의 공간으로 활용된다.

풍남문 광장에서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만 만날 수 있었던 ‘풍남문, 빛의 옷을 입다’를 주제로 한 미디어 파사드 공연이 영화제 기간 동안은 매

일 밤 9시부터 만날 수 있다.

시는 전통 가옥구조인 풍남문에 최첨단 영상기술을 입힌 이 미디어파사드 공연을 통해 전주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과거와 현재를 한눈에 살피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한옥마을과 함께 많은 관광객이 찾는 남부시장 청년몰에서는 ‘100 Films, 100 Posters’ 전시와 청년라운지가 운영돼 영화제 기간 내내 전주를 젊음과 열정으로 가득 채울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주국제영화제는 전주의 주요 공간에서 시민들과 국내·외 관람객이 전주의 전통문화와 예술, 영화영상을 즐기며 한데 어울리는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북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정

전북도교육청은 장애인공무원을 위한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제정되는 것이며, 전북도교육청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능력 증진을 위한 지원 범위와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도교육감은 소속 장애인공무원 가운데 편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근로지원인사, 보조공학기기 및 정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원 여부는 장애인공무원이 지원

을 요청할 경우, 장애 유형, 장애 등급,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되며, 중증장애인 공무원에게는 근로 지원인을 지원하고, 보조공학기기 및 정비는 모든 장애인공무원에게 지원하게 된다.

전라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우리 도교육청 소속 장애인 공무원들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됐다”면서 “비장애인 공무원과 동등한 조건에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제3회 재전백산중 · 고 동창회 체육대회

4. 30. 10시 / 전주 완산체육공원 A축구장

주최 재전백산중 · 고 동창회 협찬 백산골프회



고문 김수훈
전 전북대총장(3회)



고문 송택섭
(14회)



회장 김재기
(14회)

수석부회장 박노열(18) 이용훈(21)

부회장 이길수(17) 이상만(18) 허태표(20) 권삼현(21) 정재철(21) 주영승(22) 정자영(22) 최규환(24) 나규순(24) 김경숙(25)

재무 박기영(22)

감사 김재규(24) 최낙삼(26)

사무총장 김재호(28)

사무차장 김경섭(28) 최병곤(29) 김윤연(29) 박철진(30) 송이석(33) 이강순(33) 김중수(34)

운영위원 박영래(15) 신원식(16) 한창식(17) 김규태(18) 김택근(19) 김중모(20) 김우술(21) 박기영(22) 김장수(23) 이승희(24) 김용직(25) 한영희(26) 차규철(27) 박호석(28) 황병철(29) 서동진(30) 오연탁(31) 김재문(32) 김중진(33) 육삼수(34) 박용방(35) 고창재(36)

자문위원 송윤철(14) 김중진(18) 이용희(18) 황재식(18) 강철원(20) 김동철(22) 권창영(24) 권익현(25) 이백수(25) 우천규(27) 박천호(27) 이종희(28)